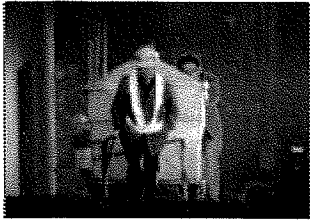


◀기쁜 우리 날들▶ 박카스 광고 “환경미화원”



한 때 텔레비전에 나오는 박카스 광고가 세간의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 어떤 환경 미화원이 쓰레기를 가득 담은 리어카를 끌고 가는데 그 뒤에서 대학 다니는 아들이 그 수레를 밀어줍니다. 아버지가 뒤돌아보면서 말합니다. "애야, 힘들지 않니?" 그러자 아들은 대답합니다. "월요, 아버지는 매일 하시는 일인걸요".

두 사람이 진짜 부자 사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박선치 씨는 강동구청 소속 환경 미화원입니다. 그는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다가 가게가 잘못되는 바람에 10년 전부터 환경 미화원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만 알렸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인 상호 군이 고2가 되더니 점점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권면을 해도 말을 안듣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날 아버지는 용단을 내렸습니다. 삼남매를 불러놓고 자신이 환경 미화원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사실 공무원이 아니란다. 아침마다 도로를 청소하는 청소원이야. 내가 지난 10년 동안 남들이 마다하는 그 일을 하며 너희들을 키웠는데 이러면 되겠니?" 그날밤 온 식구가 끌어안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빗나갔던 상호 군은 마음을 잡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고를 만든 회사는 삭막해진 이 사회에서 부자가 서로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부각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환경 미화원과 그의 아들이 리어카를 끌고 가면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서울시 각 구청에 대학생 자녀를 둔 환경 미화원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한달 넘게 지원자가 없어 광고 제작을 거의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박상호 군이 지원을 한 것입니다. 상호 군은 광고 관계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우리 가정은 어느 가정보다 행복해요. 부모님의 부지런함이 언제나 저를 가르치고 단련시켰습니다. 말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땀흘려 번 정직한 돈으로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땐 그랬지 ▶ 조기 청소

가난하게 사는 나라지만 어린아이들조차 아침 일찍 모여 마을길을 청소했던 부지런한 나라, 그만큼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는 일지 말아야 할 것은 일지 않고 살아 온 백성이었습니다. 한창 늦잠을 자야 할 어린나이에도 새벽바람에 빗자루 하나씩 들고 공부를 잘하거나 힘이 섰던 고학년 책임하에 마을길을 쓸던 조기청소 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경,옥 이런 소녀들의 이름이 그리운건 시인 그 분만이 아닙니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 손을 펴십니다 갈보리교회 (마7:8)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8권 37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6년 9월 17일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성경에서 추려 본 삶의 지침



1.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세상에 나누어 주지 마십시오. (요일 2:15)
2. 당신이 죽을 때 세상과 그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해 갖게 될 생각을 지금부터 항상 견지하십시오. (마 16:26)
3. 자기 자신에 대해 무심하지 말고, 자주 심중에 말하십시오. (시 4:4)
4. 일찍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당신의 젊은 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전 12:1)
5. 하나님을 회피하는 자들을 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시 119:63)
6.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기대하는 만큼,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 애쓰십시오. (고후 5:15)
7. 그 대가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리스도께 꼭 붙어서 거룩한 길을 떠나지 마십시오. (행 11:23; 딤후 3:12)
8. 사람들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십시오. (고후 10:18)
9. 은밀히 행하는 신앙의 의무뿐 아니라, 가정에서 해야 할 신앙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수 24:15; 삼하 6:20)
10. 한 날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지 아무도 모르기에, 매일 그 날이 당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잠 27:1)
11. 순례자처럼 이 세상을 지나가되, 어느 때라도 짐을 꾸려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항상 세상을 느슨하게 쥐고 살아가십시오. (벧전 1:17; 고전:29-31)
11. 세례와 성찬 때 드린 맹약을 항상 생생히 기억하고 그에 걸맞게 살아가십시오. (시 56:12-13)
12. 외적인 신앙고백이나 경건의 모양에 만족하지 말고, 사람들 사이에 이름이 나는 것으로 자궁하지 마십시오. (딤후 1:16)
13. 십계명의 첫 번째 돌 판과 두 번째 돌 판을 분리하지 말고 항상 이 둘을 함께 생각하고 지키십시오. (마 22:37)
14. 모든 죄를 깨어 경계하되, 특별히 당신이 애착을 갖거나 쉽게 무너지는 죄에 대하여 더욱 그리하십시오.(시 18:23; 히 12:1)
15. 중병과 죽음의 침상에서 위로 받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준비하십시오(딤후 6:19)

◀말씀따라 행하기▶

하나님은 마치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말고는
더 할 일이 없으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인품따라 행하기▶

남편을 집에서
대장 만들지 못하면
남편은 나가서도
대장이 못됩니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y	Calvary	다 같이
참회와 소원을 위한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34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32(시143편)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도자
찬송 Hymn	463장	다 같이
기도 Pray		고성일 안수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출애굽기20:4-6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주와 동행하면서	나무심자가 성가대
설교 Sermon	십계명(2) "우상을 만들지 말라"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512장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주님께서 같보리성전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전건축헌금 드린 교우의 헌금 봉투에서-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 1,200 총액:\$139,705

◆9월 예배위원◆

일자	기도	차량	안내
27	장현중	김교섭	본 당: 노은숙
3	정덕수	박일영	윤주야
10	최재학	이광희	현 관: 장현중
17	고성일	장현중	정덕수
24	권용일	정덕수	새교우: 이광희 장유진

◆9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3	성찬주일 월초새벽기도회(1) 남선교회(1) 구역예배(8)
10	믿음의 어머니기도회(12)
17	
24	이삭줍기주일 학생부수련회(29-1)

『교회 생활』 2006년 신앙생활: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	『교회 등록』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12:30분 수요일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 토 오후 5시	

- 교우소식.
 - <이사> 김중원, 김영경 집사. ☎279-7100. 7 Dryden Ave. Papatoetoe
 - <입원> 김소연 권사. 낙상으로 인한 골절. Auckland Hospital
 - <우승> 김영길 집사. 전국체전 선발을 위한 테니스대회 우승(6연패)
*이형택 선수도 세계 3위 이반 류비치치(크로아티아)를 이겼다네요.
- 미주한인장로회 남태평양노회 연합 1일 부흥회(예고)
 - <일시> 9월 29일(금) 저녁 7:30분 <장소> 주님의교회
 - <강사> 송병기 목사(뉴욕 양문교회. 미주한인장로회 총회장)
- "우리 교회 우리 손으로, 우리 교회 우리 자녀에게"
 - *토요집회를 위해 악기를 자신들의 차에 싣고 다른 장소를 향해 가는 청년들의 모습, 불쌍하고 측은하지만 그 열심만은 한결 같기를 바랍니다.
- 수요일예배 <일시> 수요일 저녁 7:30분
 - *교우들께서 좀 더 열심을 내어 민수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기를 기대하는 목사의 마음입니다.
- 학생부 수련회(예고) <일시> 9월 29일(금)-10월 1일(주일)
 - <장소> Karanga Camp. 79 Te Henga Rd. Bethells(Swanson)
-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55분>
 - *일주일 중 하루 만큼은 시간을 좀 많이 내어 가족과 교우,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응답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작한 시인들▶

꽃처럼 웃을 날 있겠지요

김용택

작년에 피었던 꽃
올해도 그 자리 거기 저렇게
꽃 피어 새롭습니다
작년에 꽃 피었을 때 서럽더니
올해 그 자리 거기 저렇게
꽃이 피어나니
다시 또 서럽고 눈물 납니다
이렇게 거기 그 자리 피어나는
꽃
눈물로 서서
바라보는 것은
꽃 피는 그 자리 거기
당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 없이 꽃 핀들
지금 이 꽃은 꽃이 아니라
서러움과 눈물입니다

사망 길가 나무들이 활짝 핀
꽃들로 제 한 몸 겨워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토록 지루한 겨울을
떠나보내겠다는 바람들의 신호인
듯합니다.

그런 꽃속에 창조주의 오묘함이
있고 꽃다운 청춘이 있고 꽃잎
같은 그리움이 있습니다.

해마다 보아 둔 벚꽃 피는 길에
는 아직 피어나지 않은 나무들이
손대면 터질 듯 한 뽀루지처럼
빨갭게 부어있습니다. 내게 있는
그리움과 아름다움도 이런 진통
을 겪은 후 단정히 남아 있는 것
임을 알겠습니다.